

제목: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 마태복음 13장 22-30절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만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의 문이 어떠한지 하십니까?

1. 곧 _____고 하십니까.
2. _____가는 자들이 많다고 하십니까.
3. 그러나 아직은 _____ 있다고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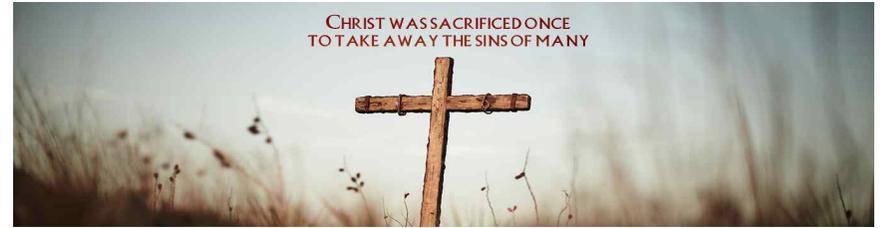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운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 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13장 22-30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13: 22-30 신약 118 페이지 Presider
-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 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고등학교 창립 기념일)

오래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국에서 다녔던 고등학교가 창립 50년이 된 기념이 날이라고 한다. 그 학교에서 지난 50년 동안 유명한 코미디언이 나왔고, 알만한 연예인들, 경제계를 이끄는 동창 그리고 지금도 한창 뉴스에 오르내리는 정치인 후배까지 있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에 뿌듯함이 생겼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신설학교였지만 지난 50년 동안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내려갔던 것이다. 기념의 날에 한 것은 기념식과 아울러 여의도 성을 전체 한 바퀴 걷는 걷기대회가 열렸던 모양이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학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꾸준히 교육의 일을 해왔고 그 비전을 성실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50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학교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 하다. 졸업을 하지 못하고 떠난 학교이고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은 미국으로 온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기 위하여 전념하며 공부했다. 그러나 기념일은 없다. 어떤 면에 외로움이 몰려온다. 사역을 위한 준비의 과정 중에 있던 동문과 동창들은 지금도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어 정신들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이 자랑스럽다. 고등학교도 자랑스럽지 만 실은 신학교가 더욱 그러하다. 고생도 고생이었으나 그만큼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곳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녔고 또한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가? 과연 50년을 맞이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임 없이 전하는 곳이 되었는가? 또한 될 것인가? 궁금하다. 그러려면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되어간다. 지난 3년여 동안은 전염병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가? 앞으로의 시간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50년이 될 때에 돌아보며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끈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큰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교회가 아니면 어떤가? 우리교회를 거쳐 지나간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에 바로서서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 있는 기초를 경험하고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방황의 공백 기간을 거치지 않은 행복은 인생의 길이 아니겠는가? 고등학교 창립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과 교회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니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생활에 전념하는 생활이야 말로 인생 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자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쟈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새로 등록된 가정

박현자 자매님 (503)964-2319 Beaverton, OR

6. 다음 주 방문자

우리교회가 기도하며 돕고 함께 사역하는 New Jersey의 Deep Roots Church (깊은 뿌리들 교회)에서 방문합니다. Rev. Andrew Chun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함께 온 성도들의 특순도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5월 행사

목자 훈련 6월 25일(주) 친교 후
목장 모임 6월 25일 주 중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